

강도 높이는 코로나19 서울시 대책

교회 등 집회금지 '집안단속'... 해외입국자 점검 '유입차단'

서울시-자치구, 282개 교회 위반적발 사랑제일교회에 첫 집회금지 명령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눈에 띄게 증가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내부 방역을 철저히 해 코로나19의 집단 발병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유럽, 미국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22일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2일 예배 진행 의사를 밝힌 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했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관 등 공무원 5200명은 22일 오프라인 집회 예배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러 가고 있다. /서울시

한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83건을 즉시 시정 조치했다.

박원순 시장은 "딱 1군데 전광환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제일사랑교회의 경우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이 확인돼 즉각 시정 요구를 했으나 교회가 이를 묵살하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

시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과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집회 금지를 위반한 개인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제례를 금

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시는 영세교회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해 이 부분에 대해 교단 측에 임대료와 같은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해왔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납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철저

서울시는 해외유입원을 통한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유럽 외에 미국, 필리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같은 유럽국가와 북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역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보다 6명 증가한 330명으로 집

계됐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해외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의 해외입국자 확진자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유럽 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입국자의 경우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확보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동일한 비행기편으로 입국한 동승자 명단도 정부에 요청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2주를 소급한 입국자 명단까지 확보해 점검할 것"이라며 "단기 체류자도 외출자제 등 2주간 자율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유증상자를 수용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1022개의 가용 병상을 갖고 있으며 293개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환자관리반을 운영,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화상면접으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채용

청년 200여명, 150개사 일대일 면접 사회공헌활동, 6월이후로 일정 변경

서울시는 전국 지역 기업들이 서울 청년을 채용하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면접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청년 200여명과 150개 기업이 개별 링크로 접속해 일대일 화상 면접을 실시한다.

시는 면접 이후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발대식 등의 행사를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정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 교육 등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활동 모습.

봉사를 하는 '사회공헌활동'은 6월 이후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역의 기업들이 서울청년을 채용하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침체한 지금 상황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강원도에 역사·문화 보물창고 짓는다

(통합수장고)

서울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관리 사업비 428억 투입...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에 '통합수장고' (연면적 9000㎡)를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 일대 4만4615㎡ 부지에 수장품 35만점을 보관할 수 있는 통합수장고를 개관한다. 사업비로 총 428억 8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장고는 유물 보존처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수장고와 보존처리실에 대형 유리창과 터치스크린 패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유물을 구경하고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보존처리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되는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감도. /서울시

시설의 핵심인 수장고는 위탁 유물의 재질과 크기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조성한다. 일반형 수장고(1800㎡)에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소장품을 보관하며, 가변형 수장대를 활용해 다양한 크기의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토기, 필름 등은 항온, 항습 유지 기능이 있는 특별형 수장고(1800㎡)에 둔다.

보존처리실(1215㎡)에는 개별 문화

시설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3D 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훈증기 등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배치돼, 위탁받은 유물의 보존처리와 복원·수리를 지원한다.

상설전시장(900㎡)에서는 내부 수장품을 활용한 특별전시가 열린다. 야외 전시실(5000㎡)은 비석, 전차와 같은 대형유물과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 야외 전시공간으로 꾸며진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4일(화) 음력: 3월 1일

수도권 날씨 5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30 | 해질 / 18:48

지역별 날씨: 연천 0/17, 동두천 1/18, 가평 0/17, 파주 0/17, 서울 5/17, 양평 2/17, 수원 6/17, 용인 6/17, 평택 1/18, 백령도 6/13, 인천 5/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아리수 정수과정서 바이러스 제거"

서울시는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수도물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완벽히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수도물은 한강에서 원수를 가져온다. 1차로 각 아리수 정수 센터에서 적정 약품을 섞어 불순물을 걸러낸

후 오존과 숯으로 구성된 고도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적정량의 염소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미생물 억제에 의해 염소를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99.99% 이상 제거되거나 불활성화된다"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

해 바이러스 및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든 끊이지 않고 바로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와 국제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물을 통해 퍼지는 수인성 바이러스보다 염소 소독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